

-부산 李南珍씨를 찾아서-

충무동 「중서종합식품」

우리 업계는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

정부행정관청의 콩나물에 대한 행정부재, 언론기관의 콩나물 오도에 따른 소비자의 편견과 사법부의 오판, 우리가 각계에 콩나물을 바로 알리고 우리의 권익 신장을 위하여 대외적으로 추진할 일이 너무 많이 밀려있다. 그러나 “행정관청이나 소비자등에게 이러한 것을 주장하기 이전에 우리 두채업자 자신들의 콩나물 재배업에 임하는 의식 구조부터 개선하여 스스로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사전에 배재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그는 멀고 낯선 타향땅 부산에 15년전에 정착하여 오늘이 있기까지 그의 고초는……

“15년전 마음이 통하는 몇몇 친구들과 대망의 꿈을 품고 고향을 등지고 멀고 낯선 타향인 부산땅에 발을 내딛었을때는 정말 아득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금의환향을 위하여 서로가 피나는 노력의 경쟁을 벌였습니다.

어떻게 하다보니 한사람이 콩나물에 손을 대게 되었고 그런대로 두채업자로 정착을 하고나니, 연쇄반응으로 동료들이 그업에 종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산의 두채업계에는 동향친구들이 비교적 많은 편입니다.”

전남 고향이 고향인 李南珍(36歲)씨는 자신이 두채업에 몸담게 된것은 그당시나 현재의 제반 여건을 감안한다면 무척 다행한 일이라고 회고하고 있다.

처음에는 콩나물재배장의 종

업원에서부터 시작하여 콩나물 재배의 기초부터 토대를 차츰 다져나갔다.

어느정도 소신이 섰을때에는 자신이 일하던 콩나물재배장을 인수하여 직접 경영을 하게되었는데 운이 좋았던지 번창을 하게되었다.

한때는 두부제조업에도 손을 대어 보기도 하였고 몇년전에는 절임식품류 쪽으로 사업을 확장하여 보았으나 실패하여 몇천만 원을 손해보기도 하였단다. 그여파로 지금까지도 재정적인 고통을 겪고 있다.

현재는 부산 서구 충무동2가 4번지 충무시장내에 있는 3층건물의 지하층을 빌어 매일 2가마의 콩으로 콩나물을 재배, 주로 냉동수산 식품공장이나 신발공장에 납품하고 있으며 일부는 충무시장이나 부평시장 등에도

출하하고 있다.

부산시 두채업자연합회의 4부개 친목단체중 남부친목회의 회장직을 맡았던바 있는 이남진씨는 역시 고향친구인 김종구씨가 당시에 충무로서 자신의 뜻을 이해하고 남부친목회의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도움을 주어 지금은 31명의 회원이 서로 두채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호 이견을 무리없이 조정을 하고 공동이윤추구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한다.

10년전에 결혼하여 아들만 둘을두고 성실하고 열심히 노력한다면 반드시 노력한 만큼의 댓가가 온다는것을 생활신조로 하여 살아온 결과가 오늘에 이르게 됐다고 한다.

그동안 수많은 시련이 다가왔

지만 곳곳히 또 열심히 헤쳐나
가다 보니 오늘이 있게 됐다고
하는 그는

“두채업에 종사한지 얼마
않았을때 었습니다. 햇콩이 출하되
어 원료선택에 무척 고심을 했
습니다. 원료콩을 잘못 선택하여
짜이 잘 나오지 않고 중간에 썩
어버리는 예가 허다 했습니다.”

경험이 부족했던 초기단계
에서는 그 누구든지 원료의 구입
에서부터 난관에 봉착하여 쉽게
만 여겨왔던 콩나물의 재배가
생각보다도 훨씬 힘들게 극복한
것은 예외가 아닐 것 같다.

대부분 부산지방에서는 알이
좁은 청태를 원료로 이용한다.

이는 부산지방이 바닷가에 위
치하고 있어 지하수의 문제로
쥐눈이콩이나 일반 콩나물용 콩
으로 사용했을때에 잘 자라지
못하고 질병에 약하기 때문에
알이굵고 힘이좋은 영남지방에
서 생산하는 걸파랑콩인 청태를
원료로 하여 오래동안 재배·출
하해온 결과 부산 소비자의 입
맛에 정착이되어 가끔 일반콩으
로 콩나물을 재배하여 공급하여
도 청태 콩나물로 다져온 부산
소비자의 입맛을 바꿔놓지 못해
소비가 잘 안된다고 한다.

이제는 콩의 선별방법과 콩
나물 재배도 자신의 감각

으로 익혀 어느환경 어느조건에
서도 문제없이 콩나물을 재배할
수 있는 소신을 갖게되었다 한
다.

그러나 정부당국자의 콩나물
에 대한 행정적용에 있어 근거
도 없이 일관성 없는 처사로 하
여금 벌어지는 제반 사항에 대
하여는 누구도 그렇듯이 자신에
게도 속수무책일 뿐이기 때문,
두채업자들이 서로 단결하여 대
처해야 할 일이라고 말하고

「호마이」나 「캠탄」등의 농약
시비로 일부의 부산지방 업자들
이 곤욕을 치루고있는 현실을
아무런 대책도 없이 바라보는
것은 정말로 가슴아프다고 하는



그가 일구어 놓은 그의 터전은 그동안 수많은 시련과 피나는 노력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고 -



“업자 모두가 눈앞에 보이는 이윤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좀더 긴 안목으로 콩나물 재배에 임하는 자세가 보다 중요할 것”이라고 자신의 소견을 피력 -

그는, 정부는 빨리 여기에따른 기본 대책을 세워 두채업자를 애매한 범법자로 만들어서는 아니되며 이러한 소용돌이에 휩쓸리지 않기 위하여는 “두채업자 자신들의 의식구조를 하루속히 개조함은 물론 하나의 균센힘으로 뭉쳐서 공동사안에 대한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한다.

흔히 하는 말로 “콩나물을 3년 먹으면 문지방을 넘지 못한다”고 할 정도로 콩나물의 영양가치는 매우 우수한것이지만 “이러한 훌륭한 전통영양식품인 콩나물 재배업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 두채업자들 스스로가 알팍한 이윤에만 눈이 어두워

좀더 장기적이고 긴안목으로서의 콩나물재배에 임하는 마음 자세가 중요할것”이라고 우선 두채업자의 각성을 촉구하고,

“그후 우리가 정부관공서나 일반소비자에게 우리의 권익을 주장해야 하는것이 순서가 아니겠냐?”고 반문하기도 한다.

요즈음 부산지방에도 간간히 야기되는 업자들 상호간의 과당 출혈 경쟁에 기인한 제반 문제들이 심심찮게 발생되고 또 이것이 과열이 되면 거기에따른 영향이 모든 두채업자에게 돌아가게 되고 결국 원인행위자 자신의 손해로 돌아오므로, 이러한 문제들에 각성하고 또 문제를 야기시키고 하는 악순환을 거듭할것이 아니고, 사전에 스스로

자중하고 또 서로가 양보하는 미덕을 갖는 길이 제일 우선책이라고 하면서,

“부산지방에 와해되었던 친목단체가 재정비되어 부산두채협회로 발족하였으니 이번 협회의 재정비를 계기로 그동안 야기되었던 제반문제들이 해소됨과 동시에 다시는 종전의 불미스러운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각오가 부산지역의 전체두채업자에게 있어야 할것”이라고 말하고 자신도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꾸준히 노력할 것을 다짐하기로 했다.